

문헌의 출간 현황으로 살펴본 17~19세기 후반 서양의 한국 연구*

- 「언더우드 목록」의 수록 문헌을 중심으로 -

배민재**

〈차 례〉

- 서론
- 「언더우드 목록」 중 '1880년 이전' 항목의 의미 분석
- 17~19세기 초: 경험적 지식에 대한 수요와 문서선교
- 19세기 중반: 동아시아에서의 접촉면 확대와 제일 서양인 사회
-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17~19세기 서양에서 한국에 관한 정보와 지식이 생산, 유통되는 경로와 과정의 다양한 맥락들을 조명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에 관한 서양어 문헌의 출간지, 출간 언어, 그리고 문헌에서 다루어지는 주제 등에서 나타난 시기별 변화를 추적하였다. 문헌의 출간 흐름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잡은 이유는 적어도 20세기 후반으로 접어들기 전까지 주요한 정보·지식은 대체로 출간된 문헌의 형태로 습득,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문헌의 저자나 내용에 관한 분석보다는 여러 문헌의 서지사항을 통해서 취합할 수 있는 정보에 주목하였다. 문헌의 출간 현황은 관련 지식에 대한 수요를 읽을 수 있는 지표이며, 특히 번역과 재출간 현황을 통해서 지식의 유통 및 확산 정도까지 가능할 수 있다. 또, 문헌의 출간 시기와 저자, 그리고 문헌에서 다루어지는 내용 등을 통해서 한국에 관한 관심이 촉발된 특정한 계기나 맥락을 읽어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한국에 관한 서양어 문헌은 텍스트 분석을 위한 자료라기 보다는 경향성과 흐름을 보여주는 데이터에 더 가깝게 활용되었다. 문헌의 서지정보는 가장 많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3S1A5B5A16076884).

** 가톨릭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

은 한국 관련 서양어 문헌이 수록되었다고 알려진 「언더우드 목록」(원저명: “A Partial Bibliography of Occidental Literature on Korea, From Early Times to 1930”)을 통해서 수집하였으며, 분석 대상으로 삼은 시기는 17세기부터 1880년까지이다.

한국과 서양 간의 접점이 증가함에 따라 서양어 문헌의 출간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한국 인식이 구체화 되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 조명하고자 하였던 것은 그 당연하게 여겨지는 현상을 작동시킨 주체와 맥락의 다양함이다. 서양이 외부세계인 ‘동양’을 일원적으로 인식하였지만, 동양이 결코 일원적인 세계가 아니듯이, 타자화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본 주체로서의 ‘서양과 그들의 한국 인식 역시 일차원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었다. 물론 19세기 후반 서양의 동아시아에서의 정치적, 군사적, 상업적 이해의 확대는 한국에 관한 탐구를 추동한 강력한 동인이었다. 그러나 한국에 관한 지식을 생산하는 모든 활동이 곧 제국주의적 욕망과 직결되어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양한 경위와 맥락에서 이루어지던 한국에 관한 탐구가 제도화된 학술의 영역에서 다루어지게 된 과정 역시 제국주의나 오리엔탈리즘으로만 환원시켜서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한국 인식의 형성에 관여한 주체와 사상, 환경, 제도 등에 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접근과 분석이 이루어졌을 때 ‘복수의 한국학’이라는 확장적 개념도 더 명확해질 것이다.

[주제어] 한국학, 지역학, 동양학, 오리엔탈리즘

1. 서론

‘나’ 혹은 ‘우리’를 바라보는 타자의 시선이나 인식을 탐구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이다. 우선 사회화된 존재로서 갖게 되는 자연스러운 호기심, 이와 더불어 편견이나 왜곡이 혹시 존재한다면 그것을 교정하고 싶은 욕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통해 ‘나’ 혹은 ‘우리’를 더 잘 알기 위함일 것이다. 학술의 영역에서 외부의 시선이나 인식을 탐구하는 작업이 단지 왜곡된 인식과 편견을 밝히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그와 같은 인식의 기반과 토대를 밝히는 데에까지 나아가야 하는 이유 역시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에 관한 지식을 더 풍부하게 하는 것인 동시에, 장차 ‘우리’에 관한 연구의 방향성을 한층 다양하게 전망하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오늘날 제도화된 학술의 장(場)에서는 한국에 관한 연구를 ‘한국학’으로 통칭하지만, 지식 생산의 주체를 기준으로 ‘우리’와 ‘외부’를 구분하는 인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특히, 과거 국내 학계에서는 해외의 한국학

을 ‘국학’과 구분하거나, 혹은 중심-주변부 정도의 관계로 생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국학의 저변이 확대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해외의 한국학 역시 각각의 학문적 전통 위에서 형성·발전해 온 ‘복수의 한국학’이며, 상호 활발한 소통과 교류가 한국학의 학문적 지평을 넓힐 것이라는 전망이 학계에 공유되고 있다.¹⁾ 이 같은 기대가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복수의 한국학’의 형성에 관여한 인물, 사상, 환경, 제도 등에 관한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접근과 탐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국내 학계에서도 꾸준히 다루어왔던 서구 한국학의 형성 과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서양이 ‘외부세계’로 규정된 아시아, 즉 동양에 관한 탐구는 다양한 논의를 거쳐왔지만, 그 논의의 방향성을 크게 전환시킨 것은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이었다. 물론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 담론 역시 ‘동양’의 일부를 전체로 환원하였다는 지적, 혹은 오리엔탈리즘의 전유나 지식이 만들어지는 구조 등을 간과하였다는 등의 지적을 받아왔다.²⁾ 그러나 여러 비판과 지적에도 불구하고, 식민주의 담론을 분석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방법론의 측면에서 『오리엔탈리즘』의 영향을 받은 가운데 이루어져 온 것도 사실이다. 특히, 개별 인물 혹은 작품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통해서 그에 담긴 인식과 관점을 조명한 연구들은, 그것이 반드시 식민주의 담론만을 분석해내기 위한 목적은 아닐지라도, 계속 그 분석의 대상을 확대해가는 방향으로 지속·발전해 왔다. 서양의 한국 인식, 혹은 서구 한국학을 탐구하는 많은 연구에서도 이 같은 문화사적 연구 방법론은 전혀 낯설지 않다.³⁾ 그런데 문화사적 연구 방법론은 수많은 텍스트에

1) 장윤희, 「동아시아한국학의 심화·확산과 해외 한국학의 집단전기학」, 『한국학연구』 제61집, 2021, 183~184쪽.

2) 권윤경, 「프랑스 오리엔탈리즘과 ‘극동(Extrême-Orient)’의 탄생: 경성제국대학 프랑스어 도서들 속에 얽힌 제국 시대 지성사의 네트워크」, 『아시아리뷰』 제7권 제2호(통권 14호), 2018, 185~187쪽.

3) 김선홍, 「Homer B. Hulbert의 韓國說話分類觀-1893년 國際民俗學大會發表分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91, 1984; 여동찬, 「개화기 불란서 선교사들의 한국관」, 『교회사연구』 5, 1987; 신형식, 「일제 초기 미국 선교사의 한국관: Griffis의 Coreia, the Hermit Nation 을 중심으로」, 『일본 식민지 지배초기의 사회분석 I』, 1987; 황희영, 「James Scarth의 韓國學」, 『한국학』 8, 1975; 김봉희, 「게일(James Scarth Gale, 기일(奇一)의 한국학저술활동에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3, 1988; 최덕수, 「개화기 서양이 바라본 한국인·한국 역사」, 『민족문화연구』 30, 1997; 신복룡, 「서

관한 연구가 축적되었다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더 종합적이고 확장적인 논의로 발전되기보다는 개별화·파편화되어가는 경향으로 기울었다. 담론 분석에 치중하였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인물이나 저작에 대한 실증을 강화하려는 시도 역시 개별화 문제를 극복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서양의 한국 인식에 작동한 지식의 구조와 맥락, 즉, 지식의 계보와 학적 네트워크 등과 같은 하부구조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분석이 요구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국이 속해 있는 범주로서 동아시아 지역, 학술 분야에서는 동양학·지역학이라는 상위 범주와의 관련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점 역시 개별화된 연구의 또 다른 문제이다. 한국 인식, 혹은 한국학을 다루는 연구에서 한국이 논의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 중국학, 일본학, 한국학으로의 전문적 분화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벌어진 현상이었다. 또 서양 각국의 동양학·지역학 관련 학제나 연구자들의 경력을 살펴보면 대체로 연구, 제도, 학적 교류 등 모든 측면에서 동아시아학, 시대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동양학'이라는 학적 범주를 형성하고 있었다.⁴⁾ 따라서 서양의 한국 인식이나 한국학의 형성 과정은 서양의 외부세계로서 '동양', 이후에는 동아시아라는 구조 속에서 출발한 것이다. 게다가 지식·권력 체계로서의 오리엔탈리즘은 인식의 분화나 구체화, 학적 접근의 순서와 방향에도 작동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서양의 한국 인식은 물론이고, 학술 영역에서 한국을 탐구하기에 이르는 배경과 맥락, 그리고 구체적인 연구의 주제들도 상위 범주로서의 동아시아 인식과 밀접한 관련성 속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학술사의 관점에서 외부세계의 한국 인식을 탐구할 때 부딪히게 되는 대표적인 고민은 인식과 지식 간의 관계, 그리고 지식과 학술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문제이다. 여기서 학술이란 제도권 학계로 인정되는 영역에서 논의되는 지식을 의미한다. 인식은 경험을 통해 형성되기도 하지만, 개인의 직

세동점기의 서구인과 한국인의 상호 인식, 『한국문학연구』 27-(27), 2004; 노혜경, 「오페르트(E. Oppert)의 조선 인식」, 『역사와 실학』 55-(55), 2014; 이영석, 「구한말 내한 독일인의 한국 이해: 오페르트, 필렌도르프, 분쉬의 경우」, 『독일어문학』 15-(2), 2007.

4) 권윤경, 위의 논문, 187쪽.

접적인 경험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기존에 축적된 지식을 통해 상당 부분 형성된다. 한국에 관한 외부세계의 인식은 분과 학문으로서 ‘한국학’이라는 분야가 성립되기 이전부터 생산·축적되어 온 지식을 토대로 형성된 것이었다. 서양의 한국 인식 연구에서 학술과 비(非) 학술의 구분에 앞서, 지식이 생산되는 맥락과 흐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제도와 기관은 분과 학문으로서 한국학의 형성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그 학적인 토대와 기반은 제도권 밖에서 생산·축적되어 온 지식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17~19세기 서양에서 한국에 관한 정보와 지식이 생산, 유통되는 경로와 과정의 다양한 맥락들을 조명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에 관한 서양어 문헌의 출간지, 출간 언어, 그리고 문헌에서 다루어지는 주제 등에서 나타난 시기별 변화를 추적하였다. 문헌의 출간 흐름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적어도 20세기 후반으로 접어들기 전까지 주요한 정보·지식은 대체로 출간된 문헌의 형태로 습득,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문헌의 저자나 내용에 관한 분석보다는 여러 문헌의 서지사항을 통해서 취합할 수 있는 정보에 주목하였다. 문헌의 출간 현황은 관련 지식에 대한 수요를 읽을 수 있는 지표이며, 특히 번역과 재출간 현황을 통해서는 지식의 유통 및 확산 정도까지 가늠할 수 있다. 또, 문헌의 출간 시기와 저자, 그리고 문헌에서 다루어지는 내용 등을 통해서는 한국에 관한 관심이 촉발된 특정한 계기나 맥락을 읽어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한국에 관한 서양어 문헌은 텍스트 분석을 위한 자료라기보다는 경향성과 흐름을 보여주는 데이터에 더 가깝게 활용되었다. 문헌의 서지정보는 가장 많은 한국 관련 서양어 문헌이 수록되었다고 알려진 「언더우드 목록」(원저명: “A Partial Bibliography of Occidental Literature on Korea, From Early Times to 1930”)을 통해서 수집하였으며, 분석 대상으로 삼은 시기는 17세기부터 1880년까지이다.⁵⁾ 본 연구의 제1장에서는 분석의 대상과 범위, 그리고 수

5) Underwood, H. H., “A Partial Bibliography of Occidental Literature on Korea, From Early Times to 1930”, *Transactions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Korea Branch* Vol.20, 1931,

집된 서지정보를 통해 살펴본 한국 관련 문헌 출간의 통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2장에서는 17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중반까지 한국에 관한 서양어 문헌의 출간 현황을, 제3장에서는 문헌 출간의 양상에서 더 큰 변화들이 나타나는 19세기 후반의 흐름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저자나 문헌에 대한 세밀한 분석보다는, 우리가 그동안 ‘왜곡’ 혹은 ‘오류’라고 지적하기도 했던 서양의 한국 인식이 어떠한 경위와 맥락 속에서 전승되었는지를 지식의 생산과 유통 및 확산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같은 시도가 한국학 형성에 관여한 다양한 주체들과 복수의 역사를 조명하고 그 상호성을 밝혀나가는 데에는 작게나마 유의미한 성과가 되기를 기대한다.

2. 「언더우드 목록」 중 ‘1880년 이전’ 항목의 의미 분석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서양어 문헌의 출간 현황에 관한 정보는 대체로 1931년에 편찬된 「언더우드 목록」에서 추출하였다. 「언더우드 목록」에는 16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중반까지 출간된 한국에 관한 서양어 문헌이 2,800여 점 이상 수록되어 있다. 물론 여기에 한국에 관한 서양어 문헌이 모두 수록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편찬자 호러스 호튼 언더우드(Horace H. Underwood) 또한 서문 격에 해당하는 글 “Occidental Literature on Korea”에서 각종 언론 매체의 보도기사나 러시아에서 출간된 문헌 등은 충분히 수집하지 못하였다고 밝혔다.⁶⁾ 그러나 편찬자의 서문과 ‘문헌 목록과 참고문헌(XIV. Bibliographies and Sources)’ 항목에 부가된 설명에 따르면, 18~20세기에 편찬된 서양어 문헌 목록과 주요 도서관 목록집 등이 「언더우드 목록」의 작성에 폭넓게 활용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언더우드 목록」은 적어도 20세기 중반 무렵까지는 가장 많은 수의 한국 관련 서양어 문헌을 포

pp.17~185.

6) Underwood, H. H., “Occidental Literature on Korea”, *Transactions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Korea Branch* Vol.20, 1931, pp.1~2.

함하고 있었다. 따라서 해당 문헌 목록이 모든 서양어 문헌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관한 서양어 문헌의 장기적인 출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충분한 자료라고 볼 수 있다.

「언더우드 목록」에서 채택한 문헌의 분류와 배치 방법 또한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살피는 분석 대상이다. 「언더우드 목록」은 형태적 측면에서 수집 및 분류의 외연을 ‘한국’으로 설정한 최초의 서양어 문헌 목록으로, 분류체계상의 독립성과 완결성을 지향함으로써 한국에 관한 지식의 학(學)적 체계화를 시도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문헌 목록이 편찬된 경위와 목적 역시 한국에 관한 학술적 연구의 강화에 있었으며, 편찬자 언더우드가 속해 있었던 제한 서양인 사회에서는 19세기 후반 이래 한국에 관한 지식을 활발하게 생산해내고 있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언더우드 목록」의 편찬은 한국에 관한 지식의 학적 계보를 구축하려는 시도였다.⁷⁾ 「언더우드 목록」에 대한 분석은 서구 한국학의 형성과정에서 하나의 주요한 축을 담당하였던 주체와 그 역할을 계보학적으로 밝히는 작업이기도 하다.

본 연구의 분석 범위는 「언더우드 목록」의 첫 번째 분류 항목에 해당하는 ‘1880년 이전(I. Early Works to 1880)’까지이다. ‘1880년 이전’이라는 항목에서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사실은 편찬자가 한국에 관한 지식이 생산되는 흐름을 분류체계에 일부 반영하였다는 점이다. 「언더우드 목록」은 언어, 역사, 관습, 종교, 과학 등등과 같은 항목을 포함하는 주제별 분류 방식을 기초로 문헌을 배치하였으며, 전체 분류체계에서 문헌의 출간 시기가 기준이 되는 분류 항목은 오직 첫 번째 항목인 ‘1880년 이전’ 뿐이다. 문헌 목록의 분류체계와 그것을 구성하는 항목들은 수집된 문헌의 수, 편찬자의 의도, 목록 작성을 위해 검토한 참고문헌과 편찬 당시의 학적 분류체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언더우드 목록」의 경우, 정량적으로는 1880년대 이후에 출간된 문헌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기는 하지만, ‘1880년대 이전’

7) 배민재, 「서양어 문헌 목록으로 살펴본 19세기 후반~20세기 초 한국에 관한 지식의 생산·축적 현황」, 『사학연구』 141, 2021, 226~230쪽; 배민재, 「『한국서지·「언더우드 목록」으로 살펴본 19세기 말~20세기 초 서구 한국학의 학술 지형」, 『한국문화』 98, 2022, 386~389쪽.

항목에도 150점 이상의 문헌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문헌의 절대적인 수량이 해당 항목의 존재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1880년대 이전’ 항목이 수집된 문헌의 분류와 배치에서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도 않다. 이는 1880년 이전에 출간된 문헌들이 각 주제에 따라 이하 분류 항목의 최상단에 재배치 되어 있다는 데에서 잘 드러난다.

편찬자가 첫 번째 분류 항목인 ‘1880년대 이전’에서 16세기 후반의 문헌부터 순차적으로 배열한 것은 그 자체로써 한국에 관한 서양어 문헌이 생산·출간되어온 장기지속적인 흐름을 시각화한 배치이다. 이 같은 배치는 19세기 후반 이전에 생산·출간된 문헌들의 상대적 희소함을 조명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1880년대부터 생산된 문헌이 「언더우드 목록」의 주된 수집 및 분류 대상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실제로, 1880년대는 조선이 미국을 시작으로 서양 각국과 정식으로 조약을 체결한 시기였다. 또, 편찬자 언더우드의 아버지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를 비롯해 영미권 선교사들이 입국해서 활동을 시작한 시기도 1880년대였다. 1880년대는 무엇보다도 현실의 변화로 인해 한국에 관한 서양어 문헌의 출간이 본격적으로 증가한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는 「언더우드 목록」에 1880년대 이후에 출간된 문헌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다는 데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결국 ‘1880년 이전’ 항목은 해당 시기를 분기점으로 하여 한국에 관한 문헌의 생산 및 출간의 흐름이 바뀌었음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한 장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언더우드 목록」에서 ‘1880년 이전’ 항목은 1880년을 기점으로 나타난 변화에 강조점을 두기 위함이었을 뿐, 그것이 곧 1880년 이전 시기에 출간된 한국에 관한 문헌과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편찬자는 ‘1880년 이전’ 항목의 문헌들을 다른 분류 항목의 상단에 재배치함으로써 비록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문헌이지만, 19세기 이전부터 생산·축적되어 온 한국 연구의 장기지속적 흐름을 시각화하였다. 재출간과 번역을 통해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유통된 문헌의 존재 또한 한국 인식이 형성된 토대와 더불어 연속성을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1880년 이

전' 항목에 대한 분석은 1880년을 기점으로 한국에 관한 서양어 문헌이 출간되는 흐름에서 나타난 변화와 연속성의 양 측면을 모두 살펴보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이다.

한국에 관한 서양어 문헌의 서지정보에서 중요하게 살펴본 지표는 문헌의 출간지와 출간 언어이다. 이들은 지식의 유통 및 확산 경로와 범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동시에, 지식을 생산하는 주체가 변화하는 흐름도 일정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한국에 관한 서양어 문헌의 출간지와 출간 언어가 확대되는 현상은 지식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다. 이에 지식의 수요가 증가한 시기와 더불어, 해당 지식에 담긴 내용이 어떠한 특징을 띠는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물론 이 두 개의 지표에 대한 분석이 어디까지나 「언더우드 목록」에 수록된 문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며, 편찬자 역시 서문에서 문헌 수집에서의 한계점을 밝혔다. 실제로 '1880년대 이전' 항목에 수록된 서양어 문헌의 언어 구성은 영어가 78점으로 가장 높고, 뒤를 이어 프랑스어가 47점, 독일어 18, 이탈리아어 5, 라틴어와 러시아어가 3, 네덜란드어 2, 스웨덴어 1점으로 영어 문헌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이는 「언더우드 목록」의 편찬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영미권 출신 선교사였다는 점에서 기인한 한계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런던이 프랑스 파리와 더불어 유럽에서 가장 많은 문헌이 출간되는 도시였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게다가 문헌의 출간 시기별로 출간 언어를 세부적으로 구분해보면 영어 문헌의 비중이 언제나 유의미하게 높았던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문헌의 언어별 구성에서 보이는 차이를 단순히 편찬자의 선호나 편의성으로 치부하기보다는, 한국에 관한 서양어 문헌이 생산 및 출간되는 지형과 조건의 변화라는 차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3. 17~19세기 초: 경험적 지식에 대한 수요와 문서선교

1) 주요 번역본의 유통과 확산

‘1880년 이전’ 항목에 수록된 문헌의 출간 현황에 따르면, 19세기 이전까지 한국에 관한 지식의 유통과 확산은 몇몇 주요 도서의 번역본 출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번역 출간이 가장 활발했던 한국 관련 서양어 문헌은 『하멜표류기』(원서명: *Journael, Van De Ongeluckige Voyagie Van't Jacht De Sperwer*), 뒤 알드(Jean-Baptiste Du Halde)의 『중국지』(원서명: *Description géographique, historique, chronologique, politique et phisique de l'Empire de la Chine et de la Tartarie Chinoise*), 그리고 라페루즈((Jean-Francois de Galaup, Comte de la Perouse)의 『세계 일주 항해기』(원서명: *Voyage de La Pérouse autour du monde*)였다. 1668년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출간된 『하멜표류기』는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프랑스어, 영어, 독일어로 번역 출간되었으며, 여러 차례의 번역과 재출간을 거치는 과정에서 원본이 삭제되거나 새로운 내용이 임의로 추가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⁸⁾ 뒤 알드의 『중국지』는 1735년 파리에서 4권의 책으로 처음 출판된 이래 1년 후에는 헤이그에서 제2판이, 1738~41년에는 2권으로 구성된 영문 번역본이, 1747~49년에는 4권으로 구성된 독일어 번역본이 출간되었으며, 러시아 번역본은 1774년과 1777년에 나누어서 출간되었다.⁹⁾

8) 『하멜표류기』는 그가 귀국한 후 1668년에 출간된 네덜란드어본뿐만 아니라 1670년에는 파리, 1672년에는 뉘른베르크 등 유럽 각지에서 빈번히 간행되었다. 이는 헨니 사브나이에(Henny Savenije)가 운영하는 하멜 관련 홈페이지의 설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병도는 1920년 네덜란드 마르티누스 니호프 출판사(Martinus Nijhoff)에서 출판한 1920년 판을 대상으로 서지학적 정보를 밝혀 놓았다. 사브나이에의 홈페이지(<https://www.hendrick-hamel.henny-savenije.pe.kr/holland19.htm>)에 따르면, 20세기 초의 판본은 1920년에 출간된 Hoetink의 네덜란드어본으로 *Verhaal van het Vergaan van het jacht DE SPERWER en van het wedervaren der schipbreukelingen op het eiland Quelpaert en het vasteland van Korea(1653~1666) met een beschrijving van dat Rijk*이며, 니호프에 의해 편집되어 Linschoten-Association(vereniging)에서 발행한 시리즈 작품이라고 한다. (김경남, 『『하멜표류기』의 번역 양상과 ‘표류 체험’의 서사·이문화 교섭의 의미』, 『탐라문화』 68호, 2021, 77~80쪽.)

9) 영문 번역본 가운데 가장 원본에 충실하다고 평가받는 판본은 에드워드 케이트(Edward Cave,

그리고 라페루즈의 『세계 일주 항해기』는 1797년 프랑스 파리에서 출간되어 1798~1799년도에는 런던에서 영문판이, 1799년도에는 스웨덴어판이 스톡홀름에서 출간되었다. 물론 이들 세 개의 책은 그 출간 시기가 각각 17세기, 18세기 초·중반, 그리고 18세기 말로 차이가 있다. 다만, 동아시아에 관한 지식의 유통과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뒤 알드와 하멜의 책이 17~18세기 유럽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반면, 원저와 번역본의 출간 시기나 번역 언어 등을 고려할 때 18세기 말에는 항해를 통한 세계 일주를 다룬 라페루즈의 책도 상당한 주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뒤 알드의 『중국지』와 라페루즈의 『세계 일주 항해기』와 달리 『하멜표류기』는 한국만을 주요한 대상으로 다룬 책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19세기 이전까지는 한국에 관한 서양어 문헌 중에서는 상당한 비중과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편찬자 언더우드 역시도 문헌 목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주요 대상으로 다룬 『하멜표류기』의 출간 상황에 더 주목하였다. 따라서 ‘중화제국’의 일부로 ‘조선왕국’을 다룬 뒤 알드의 『중국지』가 유럽에서 가장 널리 알려지고 읽힌 동아시아 관련 도서였음에도 불구하고, 언더우드 목록 ‘1880년 이전’ 항목에는 『중국지』의 영문 번역본 2개 판본만이 수록되어 있다. 반면 『하멜표류기』의 번역과 재출간 현황은 되도록 상세하게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던 흔적들이 문헌 목록에서 드러나고 있다.

‘1880년 이전’ 항목에는 19세기 이전에 출간된 영어 문헌 6점이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해당 6점 중 3점은 번역본으로, 그중 2점은 런던에서 출간된 『중국지』 영문판이고, 1점은 『하멜표류기』 영문 번역본인 *Narrative of an Unlucky Voyage and Imprisonment in Korea, 1653-1677*이다.¹⁰⁾ 또, 19

1691~1754)가 2권으로 출판한 *Description of the Empire of China and Chinese-Tartary, together with Kingdoms of Korea and Tibet*이다. 제1권은 1738년, 제2권은 3년 후인 1741년에 출판되었다. 책의 판형을 크게 줄이고 비용을 절감해서 4권으로 출판한 또 다른 영어 번역본은 에드워드 케이트의 경쟁자 존 왓츠(John Watts)가 제목을 조금 수정하여 출판한 왓츠본이다. 뒤 알드의 저서를 영미권을 비롯한 보다 넓은 지식의 세계로 안내한 책은 왓츠본일 것이다. 세계의 유수 대학의 도서관과 영미 도서관에 보관된 영어본은 케이트본 보다는 왓츠본이 압도적이며, 이후 영어권학계에서 참고하는 영문 번역본 또한 왓츠본이 압도적이다. (심태식, 「뒤 알드의 《중화제국과 중국 타타르의 지리, 역사, 연대기, 정치, 자연(물리)에 대한 서술》 小考」, 『中國學論叢』第30輯, 2010, 273~274쪽.)

세기 이전에 출간된 프랑스어 문헌은 모두 5점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중 1점은 『하멜표류기』의 프랑스어 번역본이고 1점은 라페루즈의 『세계 일주 항해기』이다. 그런데 ‘1880년 이전’ 항목에는 단지 『하멜표류기』의 번역본뿐만 아니라, 원고의 일부를 발췌 수록한 형태의 재출간까지 수록되어 있다. 예를 들어, 1746년 파리에서 출간된 *Histoire generale des voyages*는 여러 여행기를 엮어서 편집한 책인데, 이 책이 ‘1880년 이전’ 항목에 수록된 이유는 하멜의 여행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었다.¹¹⁾ 이를 통해 『하멜표류기』가 -비록 번역 및 재출간 과정에서 각종 첨가와 각색이 이루어졌을지언정- 적어도 19세기 이전까지는 한국에 관한 서양어 문헌으로 비교적 장기간 번역과 재출간을 통해 유통되었음을 알 수 있다.¹²⁾

‘1880년 이전’ 항목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이라면, 비록 서양의 동아시아 진출이 본격화되기 이전이기는 하나 동아시아 현지에서의 관찰과 경험에 기반하여 작성된 문헌에 대한 수요의 지속성이다. ‘1880년 이전’ 항목에는 16세기 말에 생산된 예수회 선교사들의 보고서가 최상단에 수록되어 있다. 이는 「언더우드 목록」상으로는 가장 오래된 한국 관련 문헌들에 해당하는데, 예수회 소속으로 일본 교구장을 지낸 페드로 고메즈(Pedro Gomez)나 루이스 프로이스(Luis Frois) 등이 유럽으로 보낸 서한이다. 이들의 서한문에 한국에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임진왜란의 발발이 있었는데, 이는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을 따라 중군하여 부산 등 경상남도 일원에 1년 가까이 체류했던 예수회 선교사 그레고리오 데 세스페데스(Gregorio de Cespedes) 신부가 보낸 4통의 서한문에 근거한 것이었다고 한다.¹³⁾ 또, 전술하였듯이 17

10) 번역본이 아닌 나머지 3점 중 2점은 해클루트 협회(Hakluyt Society)에서 출간한 아시아 탐험기이고, 1점은 스코틀랜드 출신 작가인 John Campbell의 저서이다. 이는 영국이 아시아 진출을 본격적으로 도모하기 전까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 관한 지식의 생산과 소비가 활발하지 않았던 정황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11) Underwood, H. H., “A Partial Bibliography of Occidental Literature on Korea, From Early Times to 1930”, *Transactions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Korea Branch* Vol.20, 1931, pp.23~24.

12) 단, 18세기 유럽의 지식인 사회에서 중국에 대해 갖는 관심이 더 컸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수요 자체는 『중국지』가 『하멜표류기』보다 더 높았기 때문에, 한국에 관한 정보와 지식의 측면에서도 『중국지』의 영향력은 상당했다고 볼 수 있다.

세기에 출간되어 여러 언어와 판본으로 출간된 『하멜표류기』는 물론이고, 『중국지』와 『세계 일주 항해기』 등도 모두 서술 범위에서 차이는 있을지언정 동아시아 현지에서의 경험에 기반하여 작성된 기록들이었다. ‘1880년 이전’ 항목에 수록된 19세기 이전의 문헌 중에서 현지에서의 경험을 담은 기록이거나, 적어도 그러한 기록을 인용·참조하였음이 확인되지 않는 문헌은 1771년 영국 런던에서 출간된 John Campbell의 *Commercial History of Corea and Japan* 정도뿐이다.

2) 동아시아 해역 탐사 및 동양학 연구의 동향

현지에서의 관찰과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기록에 대한 수요는 19세기에 이어졌는데, 특히 서양의 동아시아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그러한 수요와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주지하듯이, 18세기 말~19세기 초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에 의한 한반도 인근 해역의 해안 탐사가 특히 빈번했던 시기이다. 즉, 18세기 말 라페루즈의 『세계 일주 항해기』와 지도책이 출간과 동시에 유럽에서 주목받았던 배경에는 한반도 인근 해역에 대한 서양 각국의 조사와 탐험 시도가 있었다. 영국의 윌리엄 브로튼(William Robert Broughton) 중령이 태평양 북부지역의 탐험과 항해용 해도 작성에 나선 것은 라페루즈의 항해 이후 10여 년이 지난 1797년 무렵이었다. 브로튼은 1797년 406톤급의 소형 무장 범선인 프로비던스(HMS Providence)를 이용하여 뒤에 라페루즈 해협이라고 명명되기도 했던 제소(Jeso)와 사할린 사이의 해협을 통과하여 한반도의 동해안을 따라 제주도까지 항해하였다. 이 항해에서 브로튼은 해안을 측량하여 해도를 작성하였으며 부산 인근 해안에 정박, 그곳에서는 한글 어휘를 수집하거나 동식물을 채집하였다고 한다. 브로튼의 항해 기록과 조사결과는 1804년 런던에서 *A voyage of discovery to the North Pacific Ocean*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고, 3년 뒤엔 1807년

13) 고메즈 신부의 서한은 이후 해클루트 협회에서 1600년에 출간한 동아시아에 관한 서적에서도 인용되었다(Underwood, H. H., op.cit., p. 23).

프랑스어 번역본이 파리에서 출간되었다. 1817년과 1818년에는 영국의 머레이 맥스웰(Murray Maxwell) 함장이 이끈 알세스트(HMS Alceste)호와 바실 홀(Basil Hall)함장이 이끈 라이라(HMS Lyra)호의 한반도 서해안 탐사 회고록이 각각 런던에서 출간되었는데, 이들은 곧바로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등으로 번역 출간되면서 유럽 각지에 유통되었다. 이처럼 한반도 인근 해역과 수로를 탐사하고 조선을 관찰한 기록들은 그 수요와 용도에 따라서 항해기, 혹은 지도책 등의 형태로 19세기 중·후반까지 영국, 프랑스 등지에서 꾸준히 출간되었다.

각종 항해기가 19세기 초·중반 한국에 관한 서양어 문헌의 한 축이었다면, 다른 축은 프랑스, 독일 등지에서 출간된 유럽 동양학계의 한국 연구였다. 19세기 초 프랑스 파리에서는 동양어학교(Ecole des Langues Orientales)와 콜레주 로얄(Collège Royal) 등의 고등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중국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만주어에 관한 아벨 레뮈사(Jean-Pierre Abel-Rémusat)의 만주어에 관한 연구나 극동 아시아 역사를 다룬 클라포르트(Julius Heinrich Klaproth)의 연구 등에서 종종 한국이 다루어졌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에서도 드러나듯이, 19세기 초까지 유럽 동양학계의 한국 연구는 대체로 중국, 일본의 언어와 역사, 지리에 관한 연구를 동아시아 문명으로 확장·심화하는 부수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1860년대에 이르러서는 레옹 드 로니(Léon de Rosny)의 “Aperçu de la langue Coréenne”(한국어의 개요, 1864년)나 동양학자 아우구스트 피츠마이어(Philipp August Pfizmaier)의 “Nachrichten von den alten Bewohnern des heutigen Corea”(오늘날 한국의 고대 민족에 관한 소식, 1867년) 등 한국을 주요 대상으로 다룬 연구가 각각 프랑스 파리와 오스트리아 빈에서 출간되기도 하였다.¹⁴⁾ 그러나 이 연구자들 역시 한국을 주요 연구 분야로 삼았다기보다는, 중국학자 혹은 일본학자로서 수행하는 부수적인, 혹은 확장

14) Rosny, L., “Aperçu de la langue coréenne”, *Journal asiatique*, série 6, tome 3 et tome 4, 1864, pp.287~325; Pfizmaier, A., “Nachrichten von den alten Bewohnern des heutigen Corea”, Novemberh, des Jg. 1867 der Sitzungsberichte der philos.-hist. Cl. der kais. Akad. der Wiss. [LVII. Bd. S. 461-523] bes. abgedr.

적인 연구로 인식했다.¹⁵⁾

19세기 유럽 동양학계의 한국 연구는 「언더우드 목록」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향해 기록이 담긴 출간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880년 이전’ 항목에는 로니의 대표적인 한국 연구로 알려진 “La presqu’île de Corée et son avenir(한반도의 미래)”, “La Corée(한국)”, 혹은 1870년대 후반에 발표한 “L’idiome vulgaire de la Corée(한국의 속어)”, “Les émigrations des Coréens sur le territoire russe(한국인의 러시아 이주)” 등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¹⁶⁾ 또, 그에 앞서 1823년 클라프 로트가 발표한 “Asia Polyglotta(다언어의 아시아)” 역시 한국의 언어에 관한 중요한 연구로 평가받았음에도 ‘1880년 이전’ 항목에는 수록되지 않았다.¹⁷⁾ 물론 문헌을 수집하는 과정에서의 물리적인 한계가 일차적인 누락 원인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 동양학계의 한국 연구에 대한 조사와 수집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불철저했던 조사 및 수집은 19세기 동양학계의 연구가 아시아 현지에서 축적되는 경험적 지식과는 다소 괴리된 채 언어학·문헌학 중심으로 발전했던 흐름과도 일정한 관련이 있었다.¹⁸⁾

15) 다니엘 부세, 「모리스 쿠랑 평전」, 『콜랭 드 플랑시 문서철』에 새겨진 젊은 한국학자의 영혼,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외, 2017, 61~64쪽.

16) Rosny, L., “La presqu’île de Corée et son avenir”, *Journal des économistes* 8, 1859; Rosny, L., “La Corée”, *Etudes asiatiques de Géographie et d’Histoire*, 1864; Rosny, L., “L’idiome vulgaire de la Corée”, *Congrès international des sciences ethnographiques*, 1e session, 1878; Rosny, L., “Les émigrations des Coréens sur le territoire russe”, *Congrès international des sciences ethnographiques*, 1e session, 1878.

17) Klaproth, H. J. von, 1823, *Asia Polyglotta*, Paris: Gedruckt Bei J. M. Eberhart.

18) 유럽의 동아시아 연구는 18세기까지 예수회 선교사들이 생산했던 동아시아의 언어, 지리, 문화에 관한 문헌들을 토대로 발전했지만, 19세기의 유럽 동양학계는 이미 현장에서 축적되는 경험적 지식과는 괴리되어 있었다. (데이비드 B 허니, 『위대한 중국학자』, 글항아리, 2018, 80~81쪽; 권윤경, 앞의 논문, 188~192쪽; 심재훈, 「유럽과 동아시아의 중국학-두 개의 창으로 바라본 하나의 학술사-」, 『동양사학연구』 vol. 167, 2024, 497~499쪽.)

3) 선교를 기반으로 생산된 문헌들

19세기 이후에 출간된 선교 분야의 문헌 역시 「언더우드 목록」의 ‘1880년 이전’ 항목에서 주목해볼 만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19세기 이전에 출간된 선교 관련 문헌은 주로 16세기 말 이탈리아에서 출간된 예수회 선교사들의 보고서였다. 그런데 19세기 이후 선교 관련 문헌의 생산 주체는 크게 프랑스의 파리외방전교회(Missions étrangères de Paris)와 영미권 개신교 선교사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주지하듯이, 19세기 이전까지는 천주교의 조선 선교가 시도된 일이 없었고, 개신교의 경우 19세기 이후에야 해외 선교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따라서 19세기에 출간된 선교 분야의 문헌은 이전 시기보다 서양과의 접촉이 확대되어가는 현상을 나타내는 동시에, 해안 탐사와는 다른 성격의 접촉과 경험을 통해서 한국에 관한 지식이 생산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천주교의 선교 활동에서 파생된 문헌은 크게 한국 천주교회의 역사에 관한 것과 한국의 언어, 역사, 지리, 문화 전반에 관한 문헌으로 나누어진다. 천주교의 조선 선교는 1827년 교황청이 파리외방전교회에 조선 선교를 요청하고 1831년 9월에 조선대목구를 설정, 1836년에 이르러 선교사가 조선 밀입국에 성공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839년 파리에서 발행된 선교소식지 *Annales de la Propagation de la Foi* 1839에 수록된 “Missions de Corée”에는 조선 입국에 성공하기까지의 과정과 이후의 활동이 선교사들의 보고를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었다. *Annales de la Propagation de la Foi* 1847에 수록된 “Voyage a la Mandchourie et en Corée”는 1845년 사제 서품을 받은 김대건 신부가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과 함께 조선으로 입국하는 과정에 관한 기록으로, 미국의 천주교 선교소식지에도 수록되었다. 입국에 성공한 선교사들에 의해 조선에 관한 소식이 꾸준히 유럽에 전달되었는데, 조선 정부의 천주교 박해와 그에 따른 순교 현황이 서한의 주된 내용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같은 경향은 1866년 병인박해와 병인양요를 거치면서 더 강화된 측면도 분명 있었다. 그러나 후일 『한국천주교회사

(Histoire de l'Eglise de Corée, 1874)』 편찬의 주요 자료가 된 다블뤼(Marie-Nicolas-Antoine Daveluy) 주교의 비망기에 따르면 그는 조선 사회의 제도와 문화, 관습 전반에 관한 사항도 함께 보고하였는데, 이는 선교회 극동 지부와 본부의 요청 사항이기도 했다.¹⁹⁾ 또, 다블뤼를 포함한 선교사들은 19세기 중반부터 한국어 대역사전을 편찬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 이는 이후 1880년 『한불사전』의 간행으로 이어졌다.

반면, 영미권 개신교 선교사들은 파리의방전교회와 마찬가지로 중국을 근거지로 활동하였지만, 그들과는 달리 굳이 조선 밀입국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게다가 19세기 중반까지 개신교 교단이나 선교부 차원에서 조선 선교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는 정황은 뚜렷하게 드러난 바도 없다. 다만, 몇몇 선교사가 한반도 인근 해역을 탐사하면서 조선과의 통상을 시도하는 행태에 동행하여 조선인들에게 성경을 전달하는 등 선교의 가능성을 모색한 사례는 잘 알려져 있다. 접촉의 물리적인 방법이 달랐던 것만큼이나 개신교 선교사들에 의해 생산·출간된 한국에 관한 문헌은 파리의방전교회 선교사들의 서한문과는 다소 다른 특징을 띠었다. 이른바 '문서선교'라고도 불리는 개신교의 아시아 선교 방법은 성경의 번역 출간과 정기간행물 발행 등 현지에서의 활발한 출판 활동이 핵심이었다. 한국을 방문한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도 알려진 칼 귀츨라프(Carl August Friedrich Gutzlaff)는 런던선교회의 로버트 모리슨(Robert Morrison), 윌리엄 밀네(William Milne) 등과 더불어 19세기 초·중반 동아시아에서의 '문서선교'를 정립하는 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었다.

그런데 귀츨라프가 지향했던 사역 방식은 현지 언어의 습득을 전제로 가능한 것이었다. 실제로 그는 동남아시아에서 활동하던 시기에 태국어로 성경을 번역한 일도 있으며, 일찍이 화교를 대상으로 한 선교를 위해서 선교 활동 초기부터 중국어를 연마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830년대에는 중국 광

19) 다블뤼는 조선사 서설 비망기(Notes pour l'introduction a l'histoire de Coree), 조선 순교사 비망기(Notes pour l'histoire des Martyrs de Coree) 등을 작성하였고, 이를 1862년 홍콩대표부를 통해 파리 본부로 발송하였다. (최석우, 「달레 쉼 한국천주교회사의 형성 과정」, 『교회사연구』 3, 1982, 122~123쪽.)

저우에서 중국인들에게 서양의 문명, 과학, 정치제도, 역사와 지리 등을 소개하는 중문 잡지 『동서양고매월통기전(东西洋考每月统记传)』를 발행하기도 하였다. 귀츨라프가 1832년 영국 동인도회사 소속의 로드 애머스트(Lord Amherst)호에 승선하였던 주된 이유도 그가 통역관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귀츨라프는 조선을 방문한 직후인 1832년부터 1833년까지 당시 중국에서 출간되던 영문 잡지 *The Chinese Repository*를 통해 “Notes on the Corean Language”를 비롯해 한국어에 관한 글을 2편 발표하였다.²⁰⁾ 또, 1833년 11월에는 *Das Ausland*라는 독일 잡지에도 “Über die Koreanische Sprache(한국어에 관하여)”라는 글을 발표하기도 하였는데, 대체로 조선이 한자문화권이기는 하지만 고유의 음성문자인 한글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소개하는 내용이었다. 이외에도 1833~1834년에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각지의 지리와 문화 그리고 풍습을 소개한 여행기를 뉴욕과 런던에서 출간하고 1835년에는 독일어판도 출간하였다.²¹⁾

‘1880년 이전’ 항목에서 귀츨라프의 문헌을 주목하게 되는 이유는 다른 아닌 출간지에 있다. 귀츨라프의 문헌이 등장하기 전까지 한국에 관한 서양어 문헌의 출간지는 언어에 따른 변수는 있었지만 주로 런던과 파리였고, 유럽 이외의 지역에 출간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런데 1830년대에 귀츨라프의 문헌이 출간되면서 중국 광저우가 새로운 출간지로 「언더우드 목록」의 서지사항에 처음 등장하게 되었다. 전술하였듯이, 현지 언어의 습득을 기반으로 한 출판 활동은 19세기 영미권 개신교의 주요한 동아시아 선교 전략이었으며, 19세기 후반 조선에 입국한 개신교 선교사들 역시 동아시아 및 중국선교의 전례를 참고하여 한국어를 습득하고 의료·교육 등을 통해 한국 사회와

20) Gutzlaff, C., “Notes on the Corean Language”, *The Chinese Repository* Vol. I, Nov. 1832(pp. 276~279); Gutzlaff, C., “The Corean Syllabary”, *The Chinese Repository* Vol. II, July 1833(pp. 135~138)

21) Gutzlaff, C., “Über die Koreanische Sprache” *Das Ausland*, Nr. 310, München 6. 11. 1833; Linsay, H. H. & Gutzlaff, C., Voyage to the Northern Ports of China in the ship “Lord Amherst”, London: B. Fellowes ; Gutzlaff, Karl, C. 1835 *Gutzlaffs Missionars der evangelischen Kirche dreijähriger Aufenthalt im Königreich Siam nebst einer kurzen Beschreibung seiner drei Reisen in den Seeprovinzen Chinas in den Jahren 1831-1833*, Basel 1833, Basel: Evangelisches Missionsinstitut.

접촉하는 한편, 한국을 서구 사회에 알리기 위한 출판 활동에 착수하였다.

귀츨라프에 의해 출간된 문헌들의 가장 큰 특징은 큰 틀에서 그것이 선교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을지라도, 다루어지는 주제와 내용은 특별히 종교적인 성격을 띠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언더우드 목록」에서도 귀츨라프의 글들은 주로 ‘선교’ 항목보다는 ‘언어’ 항목으로 재분류하였는데, 이는 편찬자가 그것이 선교보다는 한국의 언어에 관한 연구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이후 재한 선교사들이 학술적 차원에서 한국의 언어, 역사, 문화를 연구하고자 하였던 대목과도 연결된다고 하겠다. 신앙을 전파하는 좁은 의미에서의 선교에만 국한되지 않고, 학술 영역에 가까운 연구 및 저술 활동을 추구하는 성향은 이후 *A History of Corea*(1879)의 저자로도 잘 알려진 스코틀랜드 출신의 장로교 선교사 존 로스(John Ross)에게서도 보였다. 그런 의미에서 영미권 출신의 개신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목록」의 편찬자에게 있어 귀츨라프의 문헌은 19세기 후반 이후 한국 선교의 방향성을 제시해 준 일종의 이정표이자, 한국을 대상으로 한 ‘문서선교’의 시초였다.

오히려 선교 그 자체를 주제로 한 서양어 문헌의 출간이 상대적으로 급증한 1860년대 후반~1870년대 초였다. 이 시기의 특징이라면 조선에 대한 선교 시도가 해안 탐사 및 통상 요구와 결합, 물리적 충돌을 빚으면서 파생된 문제들을 다룬 문헌들도 출간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조선과의 물리적 충돌에 관한 문헌의 출간 양상은 프랑스와 영국, 그리고 미국이 조금씩 달랐다. 사건과 관련된 문헌의 출간이 가장 활발했던 곳은 프랑스였다. 프랑스에서는 병인양요, 혹은 그것의 영향으로 출간되었다고 할 수 있는 문헌들이 1867년부터 1877년까지 13점 출간되었는데, 이는 동시기에 출간된 프랑스어 문헌의 56%가 넘는 수치이다.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는 1866년부터 1867년까지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소속의 선교사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Robert Jermain Thomas)가 제너럴 서면호에 통역관으로 승선했다가 사망한 사건과 직접 관련된 문헌 2점이 출간되었고, 1870년에는 토마스에게 조선에 전달할 성경을 준 인물로 알려진 선교사 알렉산더 윌리엄슨(Alexander Williamson)이 중국에서 한국 국경지대를 방문한 여정을 담은

기행문을 2편 출간하기도 하였다. 또, 1872년에는 파리외방전교회 소속 베르뇌 주교(Siméon-François Berneux)의 조선 선교와 순교를 다룬 아베 피송(M. L'Abbe Pichon)의 전기가 영문으로 번역 출간되기도 하였다.²²⁾

반면, 미국에서는 제너럴 셔먼호 사건에 관한 국무부 서신 외에는 별도의 출간물이 발행되지 않았으나, 1871년에 신미양요 사건을 다룬 문헌이 중국 상하이에서 출간되었으며, 1872년에는 미 해군의 공식 보고서가 작성되었고 뉴욕의 한 언론사에서 “What Shall We Do With Corea”라는 제목으로 해당 사건을 다루었다.²³⁾ 프랑스는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의 처형이 병인양요의 배경이었던 만큼 그에 대한 사회적 파장과 관심이 적극적인 문헌의 출간으로 나타났던 것으로 생각된다.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도 선교사의 죽음이라는 동질성으로 인해 문헌이 출간되었는데, 이는 동아시아 외교나 군사, 통상의 문제보다는 종교적인 차원에서의 관심이었다. 반면,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차원에서 제너럴셔먼호 사건에 항의하고 조선과의 통상을 요구, 군사적 충돌을 빚은 것이었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정도나 문헌 출간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860년대 후반~70년대 초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을 다룬 서양어 문헌의 생산·출간은 조선이 외부세계와의 접촉이나 통상을 거부한다는 공통된 인식을 서구 사회 전반에 확립시키기에는 충분했다.

22) Thomas, R. J., “Letters from Mr. Thomas”, *Missionary Magazine and Chronicle*, July 1866, pp.200~201(London :London Missionary Society): London Missionary Society, “Death of Mr. Thomas”, *Annual Report London Missionary Society for 186*, p.80(London: London Missionary Society): Williamson, A., “Williamson’s Visit to the Korean Gate”, *Annual Report for 1868*, pp.44(Edinburgh:National Bible Society of Scotland): Williamson, A., 1870 *Journeys in north China, Manchuria, and eastern Mongolia*, London: Smith, Elder and Company: M. l’Abbe Pichon, 1872 *Life of Monsigneur Berneux, Bishop of Capse, Vicar-Apostolic of Corea by M. l’Abbe Pichon, Translated from the French with a preface by Lady Herbert*, London: Burns, Oates, and Company.

23) Speer, W., “What Shall We Do With Corea”, *The Galaxy*, New York 13:303.

4. 19세기 중반 이후: 동아시아에서의 접촉면 확대와 재일 서양인 사회

조선과 서양 간의 접촉을 넘어서 물리적 충돌이 빈번해진 1860~7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에 관한 문헌의 생산 및 출간에 있어 동아시아에 체류하는 서양인의 역할은 크게 확대되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같은 흐름을 시작하고 초기에 주도한 것은 귀출라프로 대표되는 재중국 개신교 선교사들이었다. 이후 물리적 충돌이 수차례 빚어진 시기에는 재중국 서양인 사회가 관련 정보와 소식을 더 밀접하게 접하는 만큼 해당 사건을 조명한 문헌들이 홍콩, 상하이 등지에서 생산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재중국 서양인 사회 일각에서 이루어지던 한국 관련 문헌의 출간 양상은 재일본 서양인 사회의 한국 관련 출간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빠르게 변화하였다. 재일본 서양인 사회에서는 특히 조일수호조규의 체결로 인한 한일관계에 관한 관심도의 증가가 관련 문헌의 생산·출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한일관계에 관한 서구 사회의 기초적인 인식 확립을 위한 일본 정부 차원의 노력도 주목할 만하다. 1876년 미국 뉴욕에서 발행된 *An Outline History of Japanese Education*은 문부성에서 필라델피아 만국박람회에서 선보이기 위해 제작한 홍보 책자였다. 일본 교육체제의 발전사를 기록한 이 책자는 여러 논문을 취합하여 만들어졌는데, 문자의 도입부터 교육 기관의 설립, 학문의 발전 과정과 국가 교육제도의 확립을 다루고 있다. 해당 책자를 편찬하는 데에는 네덜란드 출신 선교사이자 교육가로 당시 메이지 정부의 고문을 지내던 귀도 베르베크(Guido Herman Fridolin Verbeck)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역시 문부성 고문으로 학제의 실시 및 교육제도의 확립에 참여한 데이비드 머레이(David Murray)와 문부성 관료들이 참여하였다. 베르베크는 오쿠마 시게노부, 이토 히로부미, 오오쿠보 도시미치 등에게 영어, 독일어 등을 가르친 스승이었고, 엘리엇 그리피스(William Elliot Griffis)의 고용을 추천하거나 독일 의학의 도입을 권유하는 등 메이지 정부의 교육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었다.

일본 문부성이 발행한 *An Outline History of Japanese Education*에 따르면, 문자와 학문은 한반도 남부의 왕국으로부터 도입되었으며, 이에 신국의 황제가 ‘임나’라는 명칭을 하사하였다고 고대 한일관계를 설명하였다. 또, 이후 그들이 천황의 권위에 도전함에 따라 신공황후가 삼한을 정벌하고 임나일본부를 설치하여 한반도 남부를 지배하였다는 것이다.²⁴⁾ 이 같은 서술은 해당 책자의 부록에 참고문헌으로 표기된 기타바타케 지카후사(北畠親房)의 『신황정통기(神皇正統記)』와 『신황정통기』를 사료로 인용한 도쿠가와 미쓰쿠니(徳川光圀)의 『대일본사(大日本史)』에 대한 참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²⁵⁾ *An Outline History of Japanese Education*은 일본 정부가 서구 세계의 자국의 근대적 성취를 알리기 위한 책자였는데, 이곳에서 엿보이는 인식과 지향점은 당시 일본 정부에 고용된 서양인들에게도 공유되었다.

그런데 적어도 ‘1880년 이전’ 항목에서는 1870년대 중반 당시에 서구 사회 전반이 조일수호조규의 체결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인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조약의 체결을 영국 정부에 알리는 외교관이 서한이 외교 문서 모음집 *British Blue Book*에 수록되어 있었다는 정도만 알 수 있을 뿐이며, 영미권이나 유럽에서 조일수호조규의 체결을 상세하게 다룬 문헌이 1876년 무렵에 곧바로 출간되지는 않았다. ‘1880년 이전’ 항목에 따르면, 이 시기 조일수호조규의 체결에 관한 정보나 지식, 나아가 한일관계에 관한 지식은 동아시아에 체류하는 서양인, 더 구체적으로는 재일본 서양인 사회에서 주도적으로 생산하고 있었다. 이는 당시 일본에서 활동하던 언론인 에드워드 하우스(Edward Howard House)가 자신이 발행하는 *Tokio Times*에서 “Japan and Corea”라는 제목으로 양국 관계를 다룬 기사를 발표한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²⁶⁾

일본 정부에 고용된 전문가들과 외교관, 선교사 등으로 구성된 재일본 서

24) Monbusho, *An outline history of Japanese education; prepared for the Philadelphia International Exhibition, 1876*, New York: D. Appleton, 1876, pp. 48~49.

25) *ibid.*, p. 194.

26) Underwood, H. H., *op.cit.*, p. 31.

양인 사회에서는 조일수호조규의 체결이 상당한 주목을 받는 변화였으며, 이는 이후 한일관계에 대한 문헌이 활발하게 출간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1860년대 후반부터 서양과 물리적 충돌을 빚으면서도 통상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조선이 개항하였기 때문이다. 재일본 서양인 사회는 동아시아 인접국으로서 한국에 대하여 일정한 관심은 있었으나, 조일수호조규가 체결되기 전까지는 한일관계를 조명할 만한 직접적인 동인이나 계기가 많지 않았다. 따라서 1876년 이전까지는 동아시아의 지리 조사, 혹은 동아시아 문명의 차원에서 일본어와 한국어의 언어적 특징을 비교하는 동양학계의 연구 등에서만 양국이 함께 다루어졌다. 18세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임진왜란 관련 소식을 전달한 예수회 선교사들의 서한문도 있었지만, 19세기 무렵에는 일본을 방문한 조선인을 직접 접하고 그에 관한 기록을 남긴 지볼트(Philipp Franz Siebold)의 사례는 비교적 예외적이었다고 할 만큼 일본에 거주하는 서양인이 조선을 직간접적으로 접할 기회는 드물었다.

조일수호조규가 체결된 이후 한일관계에 더 심층적인 관심을 보인 것은 외교관들이었다. 영국 출신의 외교관 윌리엄 애스턴(William George Aston)은 1878년부터 1883년까지 왕립아시아학회 일본지부에서 발행하는 *The Transactions of the Asiatic Society of Japan*에 임진왜란에 관한 글을 5회에 걸쳐 연재하였다.²⁷⁾ 어니스트 사토우(Ernest M. Satow), 역시 동 간행물에 사츠마 지방의 조선인 도공들에 관한 글인 “The Korean Potters in Satsuma”를 발표하기도 하였다.²⁸⁾ 존 거빈스(John Harington Gubbins) 역시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사츠마변에 관해 다룬 글에서 조선을 일부 다루었다.²⁹⁾ 이들이 한일관계에 보였던 관심은 오랜 인접국으로 때로는 충돌하

27) Aston, W. G., “Hideyoshi’s Invasion of Korea Chap.1”, *Transactions of the Asiatic Society of Japan* Vol.6, 1878, pp.227~248; Aston, W. G., “Hideyoshi’s Invasion of Korea Chap.2”, *Transactions of the Asiatic Society of Japan* Vol.9, 1881, pp.87~93; Aston, W. G., “Hideyoshi’s Invasion of Korea Chap.3”, *Transactions of the Asiatic Society of Japan* Vol.9, 1881, pp.213~222; Aston, W. G., “Hideyoshi’s Invasion of Korea Chap.2”, *Transactions of the Asiatic Society of Japan* Vol.11, 1883, pp.117~125.

28) Satow, E., “The Korean Potters in Satsuma”, *Transactions of the Asiatic Society of Japan* Vol.6, 1878, pp.193~203.

29) Gubbins, J. H., “Hidēyoshi and the Satsuma Clan in the Sixteenth Century”, *Transactions of*

고 때로는 교류해 온 양국 간의 관계를 통해 향후의 동아시아 외교를 전망해 보려는 직업적 필요에서 기인한 것이었기도 하지만, 체류국에 대한 학술 차원의 연구를 확장한다는 의미도 있었다. 게다가 인접국으로의 근무지 이동이 드물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현황을 파악할 필요성도 있었다.³⁰⁾

1876년 조일수호조규의 체결이 한국에 관한 서양어 문헌의 출간 흐름에 가져온 변화는 중국과의 관계가 아닌 일본과의 관계, 즉 한일관계에 관한 문헌의 증가였다. 19세기 이전까지 한국은 주로 중국, 만주와의 관계 속에서 함께 다루어져 왔다. 이는 뒤 알드의 『중국지』가 출간되기 전부터 나타났던 흐름으로, 해클루트 협회에서 출간한 아시아 탐험기의 제목에서도 중국과 한국은 함께, 일본은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존재로 다루어지고 있었다.³¹⁾ 동아시아의 지리를 다루는 19세기 초의 항해 탐사기나 지리서에서는 종종 한국과 류큐가 함께 다루어졌지만, 아편전쟁 이후 중국에서 출발하는 해역과 수로 조사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항해 탐사기나 기행문 또한 중국에서 출발하여 한반도 해역에 도달하거나 만주를 거쳐 조선의 국경지대에 도달하는 여정이 많았다. 또, 한국과 중국, 일본을 함께 다루는 문헌은 19세기 초·중반에도 간혹 출간되었지만, 한일관계를 주요하게 다룬 문헌은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이로써 결국 동아시아를 둘러싼 서양 각국의 외교, 군사, 상업적 목적과 이해관계가 관련 문헌의 생산과 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점이 확인된다. 또, 주지하듯이, 동아시아에서의 기독교 선교 역시 그러한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1870년대 중반 이후 재일본 서양인 사회가 16세기의 예수회 선교사들을

the Asiatic Society of Japan Vol. 8, 1880, pp. 92~143.

30) 실제로 에스틴이나 거빈스는 일본에 비해서는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한국 주재 외교관으로 근무하기도 하였으며, 『한국서지(Bibliographie Coréenne)』(1894~1901)로도 잘 알려진 모리스 쿠랑(Maurice Courant)이나 에드워드 파커(Edward H. Parker) 역시 중국과 일본에서 모두 근무한 적이 있다.

31) Hakluyt Society, 1600 *Three Severall Testimonies concerning the Mightie Kingdom of Coray, tributary to the Kingdom of China, and bordering upon her Northeastern Frontiers and called by the Portugales Corria, etc., etc. —collected out of the Portugale yeerely Japonian Epistle dated 1590, 1592, 1594*, London: George Bishop, Ralph Newberie, and Robert Barker.

통해서만 전해졌던 임진왜란에 주목했던 점은 흥미로운 대목이라 하겠다. 임진왜란에 관한 관심은 전술하였듯이 한일관계에 관한 관심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관심에서 비롯된 탐구의 결과는 아직 서구 사회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조선’에 관한 참고문헌으로 활용될 것이었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가 필라델피아 만국박람회에서 서구 사회에 선보이기 위해 출간했던 *An Outline History of Japanese Education*에 서술된 한일관계의 맥락과 그에 담긴 의미를 더 뚜렷하게 이해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문헌을 편찬하는 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일본 정부에 고용된, 즉 재일본 서양인 사회의 구성원이었다는 점 역시 함의하는 바가 적지 않다. 실제로, 1870~80년대에 서구 사회는 일본을 통해서 한국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받고 있었다. 그리고 재일본 서양인 사회는 일본 정부가 수집·제공한 정보를 활용, 이를 서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1875년 일본 육군성 참모국에서 제작한 『조선전도(朝鮮全圖)』는 1882년 그리피스스의 *Corea, The Hermit Nation*에 수록된 한반도 지도나 1883년 독일의 Petermanns Geographischen Mitteilungen(이하 ‘PGM’) 사에서 발행된 한반도 지도 *KOREA oder TSCHO-SEN der Japaner* 등의 기초가 되었다. 그런데 이 『조선전도』에 표기된 한반도 지명의 발음을 영문으로 표기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일본 주재 영국 외교관 사토우였다. *A Manual of Korean Geographical and other Proper Names Romanized*라는 제목으로 1883년에 처음 출간된 이 책의 서문에 따르면, 본 안내서의 지명은 일본 육군성 참모국에서 발행한 『조선전도』를 참조하였으며, 부분적으로는 『大典會通』의 지명도 참조하였다고 한다.³²⁾³³⁾ 물론 영문으로 편찬된 일본 교육사나,

32) 표제항은 1880년에 간행된 『한불주언』의 부록과 대조한 후 결정했다고 한다. (H. B. M. Legation, “Introdauction”, *A Manual of Korean Geographical and other Proper Names Romanized*, Yokohama: “Japan Mail” Office, 1883.

33) *A Manual of Korean Geographical and other Proper Names Romanized*는 1883년에 출간되었을 당시에는 별도의 저자명 없이 ‘H. B. M. Legation’에서 편찬된 것으로 표기되었으나, 1884년에 *List of Korean Geographical Names, Forming an Index to the Map of Korea*라는 제목으로 재출간되면서 ‘Ernest Mason Satow’라는 저자명이 표기되었다. 또, 1884년 판본에는 ‘Published at Gotha, and Copied from the Map of Korea Published in Tokio in 1875 by the Japanese War Department’라는 부제를 붙여 일본 육군성 참모국의 지도를 모본으로 작업한 지도의 지명 안내서

한반도 지명 안내서 등은 대중적으로 널리 유통되는 출간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두 개의 문헌의 편찬 및 출간 배경과 과정이나 해당 작업의 전반을 주도한 인물들은 19세기 후반 서구의 동아시아 인식이 형성·구축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 그리고 그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던 재일본 서양인 사회가 수행한 역할을 잘 보여준다.

동아시아를 둘러싼 서구의 이해관계가 적지 않았던 만큼 1880년대로 가까워질수록 새로운 한일관계에 대한 서구 사회의 관심은 조금씩 증가하는 양상을 띠었다. 1878년 런던에서 발행된 잡지 *Nature*에는 ‘*Japan’s relations with Corea*’라는 제목의 글이 발표되었고, 같은 해 파리에서 발행된 *La Nature*에는 일본 주재 프랑스 외교관(G. Maget)이 나가사키의 영사관에서 조선인을 만난 이야기에 관한 글이 수록되기도 하였다. 또, 뉴욕의 *Sunday Magazine*에서는 “*Corea, the Last of the Hermit Nations*”라는 제목으로 아직 서구와 통상 관계를 체결하지 않은 조선에 대해 다루었고, 독일의 지리학 잡지 *Petermann’s Geographische Mitteilungen*에서는 조선이 조약 체결 후 일본에 내어준 개항장을 조명하기도 하였다.³⁴⁾ 이 같은 문헌들을 통해서는 일본과의 조약 체결 이후 조선이 장차 서양과도 통상 수교를 맺으라는 기대와 전망이 높아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동아시아에서의 이해관계가 증대된 만큼 군사 및 무역에 필수적인 정보인 수로 조사 보고서 등도 1870년대 후반까지 꾸준히 출간되었다.

조선 개항에 대한 서양의 관심이 이처럼 높아진 시점에 에른스트 오페르트(Ernst Jacob Oppert)의 『금단의 나라, 조선 기행(Ein verschlossenes Land, Reisen nach Corea)』(1880)이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출간되었다. 『금단의 나라, 조선 기행』은 저자가 1866년과 1868년 세 차례에 걸쳐 조선을 방

임을 명확하게 드러냈다. 고타에서 발행된 PGM사의 지도 *KOREA oder TSCHO-SEN der Japaner*의 서지정보에도 어니스트 사토우가 번역자로 명기되어 있다.

34) “Japan’s relations with Corea”, *Nature* Vol. XIX, p. 268(London: Nature Portfolio); Maget, G., “Sur quelques Coréens venus en ambassade a Nagasaki. G. Maget”, *La Nature* May 18th(Paris: Bureaux et Administration du Journal La Nature): ““Corea, the Last of the Hermit Nations”, *Sunday Magazine*(New York: The New York Times) May 1878: “Verkehr zwischen Japanern und Koreanern”, *Globus* Vol. 33, pt. 4(Hildburghausen: Bibliographisches Institut).

문헌 경험에 관한 회고록으로, 그의 세 번째 방문에서 남연군묘 도굴에 실패하고 조선을 떠난 후 12년 만에 출간된 것이었다. 잘 알려졌듯이, 당시 오페르트 일행은 해당 사건으로 미국 주도하에 이루어진 영사 재판에서 기소당했으며, 오페르트 자신은 해군 제독을 사칭한 일로 본국으로 소환되어 또 재판을 받고 실형을 살기도 하였다. 남연군묘 도굴 미수 사건의 주동자는 상하이 주재 미국 영사관에 근무했었던 프레드릭 젠킨스(Frederick Henry Jenkins), 병인박해 당시 조선을 탈출한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 스타니슬라스 페롱(Stanislas Féron), 그리고 저자인 오페르트로, 이들 세 사람은 각각 미국, 프랑스 그리고 독일(당시 프로이센) 출신이었다. 그런데 해당 사건이 벌어진 1868년 당시 미국은 제너럴셔먼호 사건의 조사 문제로 조선과 비수교 상태에서 갈등 중이었고, 프랑스 역시 수교는커녕 병인박해 당시의 선교가 처형 문제로 조선과 무력 충돌을 빚은 직후였다. 더구나 조선에 대한 몇 차례의 통상 요구가 모두 실패로 돌아갔었기 때문에, 미국인과 프랑스인, 독일인이 모두 연루된 남연군묘 도굴 미수 사건에 중국 상하이 외교가(街)는 동요했다. 그러나 시신을 훔치고자 했던 이들의 행위는 조선 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경험했을지라도, 그리고 문화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차마 옹호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사건 주동자들이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지 않는 않았으나, 그들에 대한 우호적이거나 동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십 년이 넘는 기간 이후에 출간된 오페르트의 책에 서구 사회의 반응과 관심은 사뭇 달랐다.

사건의 전개가 자극적이었고 저자인 오페르트가 본국에서 실형까지 받았었기 때문에, 『금단의 나라, 조선 기행』이 꽤 주목받았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게다가 전술하였듯이 해당 도서는 조선과 서양 간의 수교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한층 높아졌던 시기에 출간되었다. 『금단의 나라, 조선 기행』은 특히 영미권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독일어본이 출간된 당해 연도에 곧바로 런던에서 영역본 *A Forbidden Land, Voyages to the Corea*가 출간되었으며, 그에 대한 서평도 활발하게 발표되었다. 당시에 이미 미국과 영국에서 동아시아 전문가이자 저술가로 알려져

있었던 그리피스는 뉴욕에서 발행되던 *The Nation*에, 미국 출신 개신교 선교사이자 외교관, 중국학자였던 사무엘 웰스 윌리엄스(Samuel Wells Williams)는 *New Englander*에 오페르트 책의 서평을 발표하였다.³⁵⁾ 또, 해당 책의 출간으로 남연군묘 도굴 미수 사건도 재조명되어 사건 당시 상하이에서 열렸던 영사 재판의 배석 판사였던 헤이즈(A. A. Hayes Jr.)의 회고가 담긴 “Oppert’s Corean Outrage”라는 제목의 글이 *The Nation*에 발표되기도 하였다.³⁶⁾

흥미로운 사실은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서구 사회의 비판적인 여론과는 상반되게, 1880년대에는 오페르트의 책 『금단의 나라, 조선 기행』, 그리고 나아가서는 한국을 세 차례나 방문하고 끝내 무리수를 감행했던 오페르트의 의도에 대한 호평과 재조명이 있었다는 점이다. 1884년 12월 영국의 주간지 *The Economist*에서는 오페르트는 ‘모험가(adventurer)’라고 소개하면서 조선을 서구 사회에 알린 그의 책 『금단의 나라, 조선 기행』도 높이 평가하였다.³⁷⁾ 오페르트는 자신의 체험과 중국에서 수집한 한국에 관한 정보들을 토대로 원고를 작성하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처럼 조선을 직접 체험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문헌은 1668년에 출간된 『하멜표류기』 이후 거의 처음이었다. 물론 1874년에 출간된 달레의 『한국천주교회사』의 「서설(序說, Introduction)」이 한국의 지리와 역사, 문화 전반에 관해 서술하였다고는 하지만, 이는 대체로 조선에 체류하였던 다블뤼 주교의 서한과 보고서, 그리고 그가 남긴 비망기와 뒤 알드의 『중국지』, 그리고 지볼트의 『일본(Nippon)』을 참고하여 작성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달레가 많은 부분을 의지한 다블뤼 주교의 비망기는 그것을 작성한 다블뤼 본인조차도 조선 사회

35) Griffis, W. E., “Oppert’s Voyage to Corea”, *The Nation* Vol. 30, 1880, p. 217(New York: E. L. Godkin & Co., Proprietors); Williams, S. W., “Oppert’s Voyage to Corea”, *The New Englander* Vol. 39, 1880, p. 509(New Haven: W. L. Kingsley, Proprietor and Publisher).

36) Hayes, Jr., A. A., “Oppert’s Corean Outrage”, *The Nation* Vol. 30, 1880, p. 305(New York: E. L. Godkin & Co., Proprietors).

37) “The Expansion of the Empire”, *The Economist* Vol. 42, pp. 1506-1507(London: The Economist Office); 최성락, 『100년 전 영국 언론은 조선을 어떻게 봤을까?』, 페이퍼로드, 2019, 26~27쪽.

와의 접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 나라의 풍습과 문화에 대해 정확하게 서술하였는지 자신하지 못하였다.³⁸⁾ 게다가 결정적으로 총 15개 항목으로 구성된 「서설」에서는 한국의 지리, 역사, 왕실, 정부, 재판 제도, 과거제도, 언어 및 한국인의 신분, 여성, 가족, 종교, 성격, 오락, 풍속, 학문 등이 다루어 지기는 하나, 당시 통상 상의 이익과 직결되는 정보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지는 않았다. 반면, 오페르트는 조선의 지리와 풍습 외에도 지정학적 위치에 대한 견해, 인구, 한반도 인근 해역의 부속 도서와 강, 농산물과 자원, 무역 등에 관해서 서술하였으며, 세 번째 조선 방문에서 통상을 제안하는 조약문 초안까지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이는 통상의 가능성과 이익을 가늠하기 위한, 즉 1880년 시점에서 서구 사회가 원하던 최신의 정보였다. 결국, 자유무역의 확대를 주장했던 영국의 주간지 *Economist*에서 1884년에 이르러 오페르트의 행위를 ‘모험’으로 재조명했던 것은 1880년대 초 조선-서양 간의 통상조약 체결에서 비롯된 기대감 때문이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언더우드 목록」의 ‘1880년 이전’ 항목에 수록된 문헌을 중심으로 16~19세기 한국에 관한 서양어 문헌의 출간 현황을 통해서 서양에서 한국에 관한 정보와 지식이 생산, 유통되는 경로와 과정의 다양한 맥락들을 조명하였다. 「언더우드 목록」의 ‘1880년 이전’ 항목은 본 문헌 목록의 첫 번째 분류 항목으로, 16세기부터 1880년까지 생산·출간된 한국에 관한 서양어 문헌 156점이 출간 연도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1880년 이전’ 항목은 『언더우드 목록』의 분류체계에서 유일하게 문헌의 출간 시기를 기준으로 설정된 분류 항목인데, 편찬자는 서양의 한국 인식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1880년이 중요한 분기점 혹은 전환점이라고 보았다.

38) 최석우, 앞의 논문, 126~130쪽.

‘1880년 이전’ 항목을 통해 살펴본 서양어 문헌의 출간 현황에 따르면, 19세기 이전까지 한국에 관한 지식의 유통과 확산은 『하멜표류기』와 뒤알드의 『중국지』 등 몇몇 주요 도서의 번역본 출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도 『하멜표류기』는 한국만을 주요한 대상으로 다룬 책이었고, 「언더우드 목록」의 편찬자 역시 해당 도서의 번역과 재출간 상황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비록 『중국지』가 18세기 유럽에서 가장 널리 읽힌 동아시아에 관한 문헌으로 알려져 있고 이는 중국에 대한 서구 사회의 오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나, 수차례에 걸친 번역과 재출간 정황으로 보았을 때 그 내용상의 왜곡과 변형과는 무관하게 한국에 관한 문헌으로서 『하멜표류기』의 확산 정도나 영향력 또한 결코 적은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하멜표류기』의 번역 및 재출간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동아시아 현지에서의 관찰과 경험’을 담은 문헌에 대한 출판 시장의 수요는 19세기 이전부터 존재했다. 해당 문헌이 출간되었던 17세기 시점에서 이 같은 수요는 접해보지 못한 외부세계에 대한 호기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외부세계와의 접촉 경험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다양한 문헌의 출간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으므로, 몇몇 주요 도서를 중심으로 번역과 재출간이 반복된 것이기도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18세기 말 라페루즈의 『세계 일주 항해기』를 시작으로 19세기 초에 각종 동아시아 항해탐사기의 출간이 활발해지는 흐름은 서구 각국의 동아시아 진출이 시작되었다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의 정치·사회적 현실 조건이 변화함에 따라 19세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수요가 더 확대되는 동시에, 이를 충족시킬 만한 문헌의 출간 또한 한층 활발해졌다고도 볼 수 있다.

한국에 관한 서양어 문헌의 주요 출간지나 출간 언어에서도 특기할 만한 변화가 보였다. 물론 이는 ‘1880년 이전’ 항목에 수록된 문헌만을 대상으로 파악한 변화이기 때문에, 편찬자의 수집 범위에서 일부 영향을 받았을 수는 있다. 그러나 19세기 초·중반 무렵부터 광저우와 상하이, 홍콩 등지에서 영어 문헌이 출간되기 시작하는 흐름은 주목할 만한 것이라 하겠다. 동아시아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서양인의 저술 및 출판 활동의 증가가 이후 한국에

관한 정보와 지식의 생산 및 유통과 확산 전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19세기 중반 이후 동아시아에서 중·장기간 체류하던 서양인들은 대체로 선교, 외교, 상업 등의 분야에 종사하였는데, 그들 중 일부는 종종 직업적 혹은 학술적 이유에서 조선에 관심을 보이기도 하였다. 편찬자는 특히 1830년대에 출간된 귀츨라프의 문헌들에 주목하였는데, 이는 그가 선교 활동의 차원에서 체류국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출판 활동을 통해 해당 체류국을 서구 사회에 알리고 학술 차원의 연구로도 발전 시키는 19세기 영미권 개신교 선교의 전형을 확립하였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동아시아에 체류하는 서양인의 증가와 영미권 개신교 선교의 확대는 영어 문헌의 출간이 증가하는 추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

1860년대 후반~1870년대 초에 빚어진 조선과 서양 간의 충돌로 서양어 문헌의 출간은 증가하였다. 특히, 병인박해와 병인양요는 프랑스어 문헌, 그중에서도 선교 분야의 문헌이 증가하게 된 직접적인 요인이었는데, 1880년에 이르는 시점까지도 조선에서의 천주교 선교에 관한 문헌의 생산이 이어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19세기 중반 이후 프랑스어 문헌의 경우 파리외방전교회가 한국에 관한 문헌의 주요한 생산 주체였으며, 선교와 무관한 문헌으로는 한국의 역사, 지리, 언어 등에 관한 문헌은 대개 동양학자 레옹 드 로니의 논문과 해역 조사 보고서 정도가 있었을 뿐이다. 반면, 제너럴 셔먼호 사건, 신미양요와 관련된 문헌의 출간 양상은 다소 달랐다. 이들 사건을 다룬 문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사건 발생 1~2년 이내에 일회적으로 출간되었을 뿐 프랑스어 문헌의 경우처럼 지속적인 출간으로 이어지지 않는 않았다.

1870년대 후반 이후 한국에 관한 서양어 문헌의 생산 및 출간에 있어서 일본 정부와 재일본 서양인 사회 간의 연결고리는 매우 주목할 만하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관한 정보·지식을 서양에 제공하였고, 당시 일본 정부에 고용되었거나 우호적 관계를 형성한 서양인들이 그 전달자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필라델피아 만국박람회를 위해 출간한 일본 교육사 도서에는 일본

사료에 기초하여 서술한 한일관계의 역사가 담겨 있었고, 1870년대 후반~1880년대에 출간된 한반도 지도는 일본 육군성 참모국의 지도를 초안으로 당시 일본 주재 영국 외교관 어니스트 사토우의 조력을 받아 제작되었다. 또, 1876년 조일수호조규의 체결을 계기로 한일 간의 역사적, 언어적 관계를 탐구한 서양어 문헌들이 일본에서 발행되는 서양어 정기간행물을 통해 꾸준히 발표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1870년대 중·후반에는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한국을 탐구하던 기존의 경향성과 달리,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한국이 다루어지는 흐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880년 이전’ 항목에 나타난 서양어 문헌의 출간 현황만 보았을 때, 동아시아 인접국 간에 체결된 조일수호조규는 그 자체로서 서구 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조약 체결의 과정 및 내용이 외교관들을 통해 서양 각국에 상세하게 전달되면서 조선과 서양 각국 간의 통상 가능성과 그에 대한 기대감은 187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었다. 1880년 독일에서 출간된 오페르트의 『금단의 나라, 조선 기행』이 크게 주목받았던 이유는 그것이 단지 조선의 역사와 지리, 사회, 문화 등 전반을 소개하는 개설서였기 때문이 아니라, 통상 상의 이익을 전망해볼 수 있는 최신의 정보를 담고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주지하듯이, 대상으로서의 ‘외부세계’에 대한 서양의 탐구는 정치적, 종교적, 상업적인 이해관계와도 궤를 같이하였다. 그런데 유럽 대륙과 가장 거리가 먼 ‘극동’에 속한 한국은 서양이 동아시아를 구체적으로 인식해 가는 과정의 거의 끝자락 정도에 있었다. 특히, 오랫동안 서양과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교류가 제한적이었던 상황에서 한국에 관한 정보는 대체로 중국, 때로는 일본을 통해서 수집되었으며, 한국에 관한 문헌을 작성하기 위해서 활용된 참고 자료 역시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비록 하멜의 장기 체류를 비롯한 몇몇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서양이 한국을 인식하고 탐구하는 과정에는 중국, 혹은 일본이라는 전달의 중간 단계가 한 차원 더 존재하고 있었다. 그 결과 1870년대 일본 정부와 재일본 서양인 사회 간의 조력을 통해 출간된 문헌들의 사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서구 사회는 중간 단계를

거쳐서 조성된 지식에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³⁹⁾

한국과 서양 간의 접점이 증가함에 따라 서양어 문헌의 출간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한국 인식이 구체화 되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 조명하고자 하였던 것은 그 당연하게 여겨지는 현상을 작동시킨 주체와 맥락의 다양함이다. 서양이 외부세계인 ‘동양’을 일원적으로 인식하였지만, 동양이 결코 일원적인 세계가 아니듯이, 타자화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본 주체로서의 ‘서양’과 그들의 한국 인식 역시 일차원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었다. 서구 제국주의, 즉 동아시아에서의 정치적, 군사적, 상업적 이해의 확대가 한국에 관한 탐구를 추동한 강력한 동인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파리의방전교회나 귀츨라프, 혹은 유럽 동양학계의 한국 연구까지도 모두 제국주의적 욕망과 직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양한 경위와 맥락에서 이루어지던 한국에 관한 탐구가 제도화된 학술의 영역에서 다루어지게 된 과정 역시 제국주의나 오리엔탈리즘으로만 환원시켜서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한국 인식의 형성에 관여한 주체와 사상, 환경, 제도 등에 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접근과 분석이 이루어졌을 때 ‘복수의 한국학’이라는 확장적 개념도 더 명확해질 것이다.

39) 이에 대해 근래 육영수는 한문 및 한글 해독이 어려웠던 서양의 아마추어 연구자들이 19세기 말부터 일본에서 축적된 연구 성과를 참조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는 강제병합 이후 시기 서양인의 한국 관련 학술 활동에 관한 분석이므로, 본 연구에서 살펴본 1870년대 제일 서양인 사회의 한국 관련 학술 활동과는 다소 시기적인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메이지 정부가 축적한 한국에 관한 지식·정보가 19세기 중·후반 제일본 서양인들의 인용과 참조, 번역 등의 과정을 거쳐 서구 사회에 유통되기에 이르는 과정과 맥락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육영수, 『근대한국학의 뿌리와 갈래』, 돌베개, 2024, 172~177쪽.)

■ 참고문헌

The Chinese Repository

Transactions of the Asiatic Society of Japan

Transactions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Korea Branch

H.B.M. Legation, *A Manual of Korean Geographical and other Proper Names Romanized*, Yokohama: "Japan Mail" Office, 1883.

Monbusho, *An outline history of Japanese education; prepared for the Philadelphia International Exhibition*, 1876, New York: D. Appleton, 1876.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외, 『콜랭드 플랑시 문서철에 새겨진 젊은 한국학자의 영혼』, 2017, 소명출판.

데이비드 B. 허니 지음, 최정섭 · 안재원 옮김, 『위대한 중국학자』, 글항아리, 2018.

최성락, 『100년 전 영국 언론은 조선을 어떻게 봤을까?』, 페이퍼로드, 2019.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탐험가, 외교관, 선교사』, 소명출판, 2022.

육영수, 『근대한국학의 뿌리와 갈래』, 돌베개, 2024.

Underwood, H. H., "A Partial Bibliography of Occidental Literature on Korea, From Early Times to 1930", *Transactions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Korea Branch* Vol.20, 1931, pp.17-185.

권윤경, 「프랑스 오리엔탈리즘과 '극동(Extrême-Orient)'의 탄생: 경성제국대학 프랑스어 도서관 속에 얽힌 제국 시대 지식사의 네트워크」, 『아시아리뷰』 제7권 제2호(통권 14호), 2018, pp.181-216.

김경남, 「『하멜표류기』의 번역 양상과 '표류 체험'의 서사 · 이문화 교섭의 의미」, 『탐라문화』 68호, 2021, pp.73-105.

_____, 「서양어 문헌 목록으로 살펴본 19세기 후반~20세기 초 한국에 관한 지식의 생산 · 축적 현황」, 『사학연구』 141, 2021, pp.211-245.

_____, 「『한국서지 · 언더우드 목록』으로 살펴본 19세기 말~20세기 초 서구 한국학의 학술 지형」, 『한국문화』 98, 2022, pp.369-398.

심태식, 「뒤 알드의 ≪중화제국과 중국 타타르의 지리, 역사, 연대기, 정치, 자연(물리)에 대한 서술≫ 小考」, 『中國學論叢』 第30輯, 2010, pp.265-283.

장윤희, 「동아시아한국학의 심화 · 확산과 해외 한국학의 집단전기학」, 『한국학연구』 제61집, 2021, pp.181-196.

최석우, 「달레 롱 한국천주교회사의 형성 과정」, 『교회사연구』 3, 1982, pp.113-159.

Western Publications on Korea in the 17th-19th Centuries

Focusing on H. H. Underwood's Bibliography

Bae, Min-jae*

This study examines the various contexts in which information and knowledge about Korea were produced and circulated in the West between the 17th and 19th centuries. The analysis is primarily concerned with the publication flow of literature, given that, at least until the late 20th century, the acquisition and transmission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were largely conducted through published literature. The status of published literature serves as an indicator of the demand for relevant knowledge, particularly in terms of the extent to which it is being translated and republished. The timing of publication, authorship, and content of the literature can also provide insight into the specific triggers or contexts that sparked interest in Korea. Consequently, the Western literature on Korea in this study was employed primarily as a source of data to illustrate trends and flows, rather than as a basis for textual analysis. The bibliographic information of the literature was collated from “A Partial Bibliography of Occidental Literature on Korea, From Early Times to 1930”, which is purported to contain the largest corpus of Western literature on Korea, and the period of analysis is from the 16th century to 1880.

As relations between Korea and the West become more frequent, it is to be expected that Western literature will be translated into Korean, and that

* Humanities and Social Institut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Korean perceptions will be influenced accordingly. However,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lucidate the diversity of actors and contexts that have contributed to this phenomenon, which is often taken for granted. As with the West's perception of the external world, the East was viewed as a monolithic entity. However, this was not an accurate representation of the East as a whole. Similarly, the West and its perception of Korea as a subject were shaped by an othered gaze. It is evident that the expansion of Western political, military, and commercial interests in East Asia in the late 19th century constituted a significant driving force behind the quest for Korea. Nevertheless, it would be fallacious to posit that all activities that yielded knowledge about Korea were inherently driven by imperialist aspirations. The process by which the exploration of Korea, which occurred in a multitude of contexts, came to be addressed within the realm of institutionalised scholarship cannot be adequately explained by reducing it to imperialism or orientalism. Ultimately,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Plurality of Korean studies” will emerge when a detailed and nuanced examination of the actors, ideas, environments, and institutions that have shaped Korean perceptions is conducted.

Key words : Korean Studies, Area Studies, Oriental Studies, Orientalism